

사도행전 프로젝트

“스데반의 순교”

본문 : 사도행전 7:54-60

한 주간의 삶 나누기

찬 송 /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 도 / 말은 이

오늘의 말씀 /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행 7:59-60)

□ 말씀 나누기

3주에 걸친 스데반의 설교가 끝을 맺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지나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한 뒤, 결론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는 뼈아픈 죄의 지적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선 인간들의 상반된 반응과,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과연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모두에게 똑같이 들려지지만 그 반응은 180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말씀의 반응과 영광스러운 순교

1.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무리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음에도(54절)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베드로의 청중들(행 2:37)과 달리,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 돌을 던졌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책망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심판, 공의와 헌신 등 다양한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몸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멘’으로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비록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를 살리는 보약이자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절박한 위기 속에서 사방이 막힐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노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고 절박한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55절). 사방이 가로막힌 순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그곳에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자 영안이

사도행전 프로젝트

열려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56절).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스테반을 격려하시고 지켜보시기 위해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땀, 피박과 수고를 주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며 계산하고 계십니다. 환경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3.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하며 복음의 밀알로 썩어져야 합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크게 소리 질러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59-60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은 것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성공자였듯,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형편이든 성공자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짐으로써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위대한 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1. 설교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나 입맛에 맞지 않아 마음이 닫히거나 시험에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 지금 나의 삶에서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절박한 "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스테반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영안이 어떻게 열리기를 소망하나요?
3. 주님과 복음을 위해, 혹은 소그룹(속회)원과 교회를 위해 내가 기꺼이 피 흘리고 희생해야 할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영역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중보기도 :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위기 앞에서도 영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스테반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담임목사님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 속회원들의 절박한 문제와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헌금찬송 :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마침기도 : 주님의 기도 (서로를 뜨겁게 축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로 나아갑니다)